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 총력 '자활사업' 적극 추진 빛났다

최경식 남원시장, 기재부 방문 현안사업 예산 반영 협조 요청

남원시가 정부의 세손 결손으로 각종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가운데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며 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1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며 사업 반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원시는 올해 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다수의 사업 예산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재정 운용의 지상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신규 사업 및 일부 사업이 미반영되거나 축소되는 등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최 시장과 민선 8기 부시장인 세종시의 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등,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 부처를 방문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남원시의 이번 국비 지원 건의 대상 사업에는 △도자전시관 건립(170억원) △국립 전북 스포츠 훈련원 건립(490억원) △산내 부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2.85억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443.3억원) △철만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장비 지원사업(50억원) △생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15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원시는 위 사업이 시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 정치권과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중점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에 전라적인 노

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2025년도 국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 단계로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군, 가축 관리 요령 지도 강화

임실군이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경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받은 가축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 가축 관리 및 축사 환경관리 요령 지도 강화에 나섰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가축 건강관리를 위하여 축사 내부 환경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폭염으로 줄었던 가축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양질의 사료를 넉넉하게 주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고 보온 관리에 신경 써 각종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젖소는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착유 관리로 유방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돼지는 밀집 사육을 피하고, 적정 두수를 유지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며, 특히 돈사 내부 온·습도를 고려해 환기에 신경 쓰도록 한다.

닭은 계사 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온도변화를 최소화하고,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 임실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실시 한 이번 평가에서는 참여자 증감률, 자산 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증감률 및 유지율, 매출액 증가 폭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와 안정적인 매출 창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자활사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식사 메뉴가 걱정인 사람들을 위한 '오늘 뭐먹지' 밑반찬 사업을 새 아이템으로 발굴하여 매출이 향상된 바 있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게 되어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사기진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지난 7월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2위)으로 선정된 데 이

어 이번 보건복지부 우수기관까지 선정되어 겹경사를 맞았다.

임실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현재 7개 사업단에 50여 명, 4개 자활기업에 1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등 자립 능력 향상과 자활 의욕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송동섭 임실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 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자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성과는 자활센터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자활사업에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실"이라며 "임실군 자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실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저소득층 자활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전통 발효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 포럼 개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가 유용미생물은행에서 '전통 발효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순창 장류축제와 함께 열려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으며, 학계와 산업계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순창군 유용미생물은행 개소를 기념하며 열린 이번 포럼은 단순한 학술 행사를 넘어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최첨단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정도연 (재)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장의 진흥원 소개와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호서대학교 박신민 교수의 '장류의 가능성과 마이크로바이옴' 강연, 그리고 강원대학교 오덕환 교수의 '포스트바이옴스 연구개발과 산업화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업기술센터, 토양 분석 내달 29일까지 진행

남원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직불제 신청 필지량 기준, 1,161건의 필지에 대해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토양의 분석을 11월 29일까지 약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제12조에 따라 기본 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한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학비료를 사용하며 토양 화학성분 기준과 비료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비료사용 검사항목은 총 4가지로 pH·유기물·유효인산·교환성칼륨 함량에 대한 검사를 진행, 적정범위의 pH, 유기물 함량과 기준량 이하의 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범위를 통해 과다한 비료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토양시료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채취하며 부적합 필지는 농가 교육을 시행 후 다음에 재검사를 진행한다. 2회 실시 후 적합여부 판단 후 부적합 필지는 10% 감소되게 농가직불금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제안' 공모

순창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11월 3일까지 진행

순창군이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순창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3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순창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일반제안과 규제개혁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제안 분야에서는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 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던 규제 완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일상생활, 국민복지, 생활안전, 경제부흥, 취창업·일자리 등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받는다.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나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cairy04@korea.kr), 팩스(063-653-4712), 우편 등으로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실무 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0일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군은 채택된 제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즉시 시행이 어려운 경우 개선·보완 후 내년도 시책으로 발굴·실시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군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순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접수된 모든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풀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